

2010년 7월 9일 금요 성령 집회 계시 말씀

더운 날씨속에 생명 찾아 노방을 하는 정작 재림 준비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었을 때

예수님, 재림 준비가 어렵지만은 아닌거네요

그래 잘 깨달았다.

재림 준비가 무엇이나? 신부의 사랑을 하며 영원히 나와 사는 것이 아니냐? 신부의 핵심인 사랑으로 나를 맞아야 휴거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 잃으면 나를 맞이할 수 없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곧 사랑해서 밥먹는 것 생명 돌보는 것 사랑 전도하는 것 나를 너무 사랑하기로 희생하는 행실 사랑하여 운동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랑하여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재림 준비이다. 모든 것이 너의 1차 휴거를 이루는 일이다. 나를 사랑하여 1차 휴거된 힘들었느냐? 아니다 쉽다. 결코 어렵지 않다. 나 예수는 정녕 이를 수 없는 일을 열토당토 않는다. 사랑의 주 예수고 나의 사랑의 대상체이며 천지를 창조한 근본 사랑인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만든 나의 나라에

내 사랑아 너무 사랑하여 하나 뿐인 목숨을 던졌다. 그러하니 힘을 내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하라. 그것이 재림 준비다. 그것이 휴거의 비밀이다. 사랑이고 휴거의 근본은 회개하라고하는 데 휴

회개 해야 사랑이 생기지 100%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순금일 수 있느냐 정금으로 만들어야 값어치 나가는 그러니 회개하여 온전해진 사랑이다. 휴거 받을 수 있는 사랑이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다. 마음을 비워 진정한 사랑을 하여라. 비워라. 나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라 나를 맞아라. 나를 최단시간 최고의 비밀이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회개하여 깨끗하게 맞자 늘 나를 맞이하길 바라며

나 예수가